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전 세계의 기업 가운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중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AGF Investments 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679억 원

-모투자신탁 736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100% 이하
-모투자신탁의 주식편입비 : 7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A : 2007년 01월 15일
- 클래스 A-E : 2016년 09월 01일
- 클래스 C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20일
- 클래스 C-F : 2017년 07월 10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10월 26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9년 07월 25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9년 04월 17일
- 클래스 C-W : 2007년 03월 1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 클래스 S-P2 : 2016년 07월 06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95% +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해지 비중 93.3%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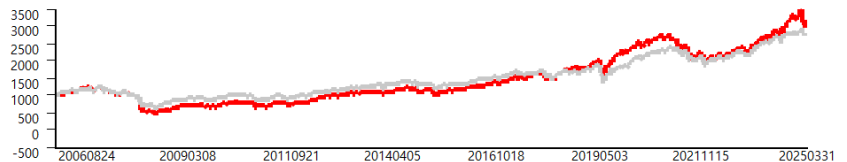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5.77%	-4.14%	1.93%	11.26%	40.97%	23.98%	82.89%	202.89%
클래스 A	-5.94%	-4.60%	0.96%	9.13%	35.59%	16.84%	65.70%	92.98%
클래스 A-E	-5.89%	-4.47%	1.23%	9.71%	37.04%	18.75%	70.23%	130.55%
클래스 C	-5.97%	-4.69%	0.76%	8.69%	34.54%	15.48%	62.47%	89.96%
클래스 C-E	-5.91%	-4.52%	1.13%	9.49%	36.51%	18.05%	68.55%	154.61%
클래스 C-F	-5.85%	-4.35%	1.48%	10.27%	38.43%	20.59%	74.64%	115.33%
클래스 C-P(퇴직연금)	-5.91%	-4.53%	1.10%	9.44%	36.38%	17.88%	68.15%	64.62%
클래스 C-P(퇴직연금)E	-5.88%	-4.44%	1.29%	9.86%	37.43%	19.27%	71.47%	93.91%
클래스 C-P2(연금저축)	-5.91%	-4.52%	1.12%	9.47%	36.46%	17.99%	68.40%	52.40%
클래스 C-P2(연금저축)E	-5.88%	-4.44%	1.30%	9.87%	37.47%	19.31%	71.55%	64.17%
클래스 C-W	-5.85%	-4.35%	1.48%	10.28%	38.49%	20.68%	74.88%	18.62%
클래스 S	-5.88%	-4.43%	1.32%	9.92%	37.57%	19.45%	71.91%	151.62%
클래스 S-P2	-5.87%	-4.40%	1.38%	10.05%	37.89%	19.88%	72.92%	152.86%
벤치마크	-3.52%	-2.34%	-1.19%	6.06%	30.03%	18.47%	86.11%	16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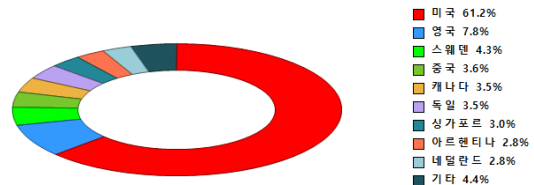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은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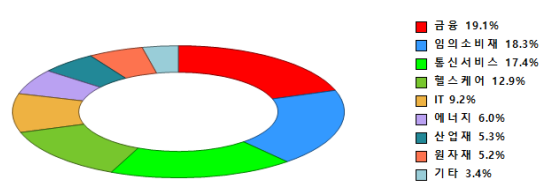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국가별>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기준, 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Amazon.com Inc	미국	임의소비재	6.7
Boston Scientific Corp	미국	헬스케어	5.5
NVIDIA Corp	미국	IT	4.7
Intuitive Surgical Inc	미국	헬스케어	4.6
Expand Energy Corp	미국	에너지	4.4
Spotify Technology SA	스웨덴	통신서비스	4.3
LPL Financial Holdings Inc	미국	금융	3.6
Tencent Holdings Ltd	중국	통신서비스	3.6
Meta Platforms inc	미국	통신서비스	3.5
CRH PLC	영국	원자재	3.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2.01%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1.46% (판매 0.55%)
- 클래스 C : 총 연 2.41%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66% (판매 0.75%)
- 클래스 C-F : 총 연 0.94%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26%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1.14%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5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C/C-E/S 없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6%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펀드의 비교 지수 기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보이며 2월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식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가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심리 약화와 비농업 부문의 고용, 소매판매, 주택시장 등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는 미국 주식시장에 추가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반면 유럽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앞섰습니다. 건조한 기업 실적,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 관리 능력에 관한 낙관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주식시장을 지지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주식시장은 대미 무역 긴장과 예상보다 느린 국내 경제 회복으로 인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IT부분, 특히 인공지능 딥시크 등 관련주식의 잠재력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밝은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모펀드에서는 금융, 헬스케어, 소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부진하면서 에너지 업종에서의 비교지수 대비 높은 편입비중과 종목선택으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를 상쇄하였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인디아 시장에 대한 배분이 펀드 성과에 성공적이었고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시장에서의 자산 성과는 펀드 성과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독일의 재정 부양책으로 유럽 연합의 국방 지출이 증가하였고, 유럽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상승하면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교지수에서 유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금의 상황에서 유럽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유럽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펀드매니저는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정책의 명확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소득 성장률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소비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미국 기업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당량의 잉여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서비스 분야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 제조업 부문에 관세 문제를 겪더라도 경기 침체 없이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산업재, 원자재, IT 같은 경기 순환주 업종을 방어주보다 선호하며 차세대 시장 선도 종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유연하고 민첩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번 조정 국면을 미래 리더십 확보의 잠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